

알기 쉬운 문답  
일본군 '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알기 쉬운 문답  
일본군 '위안부'

초판 1쇄 인쇄 2014년 9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9월 30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4

ISBN 978-89-6187-345-1 0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 2014027805)

동북아역사재단 편

알기 쉬운 문답  
일본군 '위안부'



1985.8.27  
김술명

01	일본군'위안부'란 누구인가요?	6	1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모의재판 결과는 어떠했나요?	49
02	일본군 위안소는 어떤 곳인가요?	10	12	평화의 소녀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54
03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나요?	14	13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왜 따로 논의되지 않았나요?	58
04	일본군 위안소는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나요?	18	14	고노담화란 무엇인가요?	61
05	일본군'위안부'들은 어떻게 끌려갔나요?	24	15	아시아여성기금은 무엇인가요?	65
0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28	16	아베 정부는 왜 고노담화를 부정하려 하나요?	69
07	전쟁이 끝난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32	17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73
08	일본군'위안부'는 왜 국제법적으로 불법인가요?	36	18	수요시위는 무엇인가요?	77
09	유엔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41	19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81
10	세계 각국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5	20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길은 무엇인가요?	85

일본군'위안부'란 누구인가요?

01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는 일본군 위안소에 강제 동원되어 병사들을 상대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1932년 처음 설치된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에 이를 때까지 일본의 점령지였던 중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괌 등 아시아·태평양 각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193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중국 본토에 한정되어 설치되었고,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도 대부분 일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확대로 전쟁 지역이 동남아시아, 태평양 각지로 넓어짐에 따라 일본군'위안부'의 수요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많아진 일본군'위안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을 강제로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하기도 하였는데,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여성은 물론 네덜란드 출신의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요, 강제라고 한다면, 일본군'위안부'는 모두 일본군과 그의 하수인인 민간업자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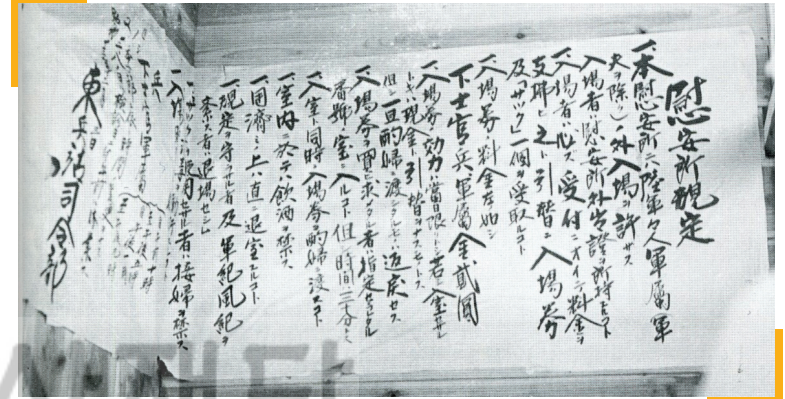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군대를 따라다니는 종군기자와는 달리 일

02

일본군 위안소는 어떤 곳인가요?



위안소에서 사용된 군표



상하이 위안소 규정

본군'위안부'는 일본군에 이끌려 이동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부르는 것처럼 '중군위안부'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군'위안부'를 '정신대'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정신대는 '여자근로정신대'의 준말로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내 제사·방직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 여성을 일컫는 말로, 일본군'위안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군대성노예 **military sexual slavery**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쿠라사와미 보고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전시하 군대성노예제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로 규정했습니다. 위안소 제도의 폭력성과 강제성을 생각할 때, 일본군'성노예'라는 명칭이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제가 '위안부'라는 단어를 만들고, 위안소를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역사적 용어라는 점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서도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01

일본군 '위안부'란 누구인가요?

## 일본군 위안소는 어떤 곳인가요?

# 02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이 병사들을 상대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곳입니다.

전쟁에 의한 피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피해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의 목숨이 너무도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대표적인 인간성 상실의 희생자이며, 일본군 위안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짓밟힌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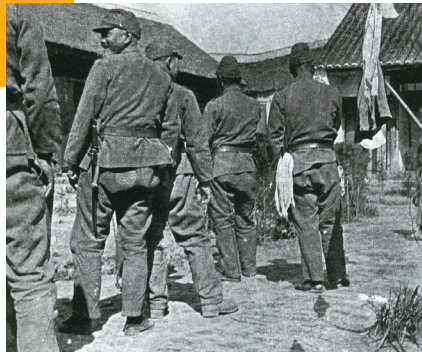
그렇다면 일본군은 왜 1932~1945년 수많은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짓밟는 위안소를 만들었을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군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는 크게 네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일본군에 의한 강간사건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본군이 점령된 지역에는 많은 민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성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일본군 병사들이 여성들을 강간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난징대학살입니다. 온

# 03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나요?



위안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본군 징병들

갖 학살과 약탈, 방화, 강간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난징대학살입니다. 일본군의 이러한 만행에 중국 사람들의 반일감정은 더할 나위 없이 격해졌습니다. 일본은 점령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서라도 더 이상의 강간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었기에 위안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군의 강간사건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일본군 병사가 성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본군은 1932년 상하이사변 직후에 병사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병검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일본군 관리하에 위안소

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일본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향에 돌아가기도 전에 죽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일본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안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넷째, 군의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병사들이 민간의 매춘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군의 정보를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군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감독, 관리가 가능한 위안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소에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성이 다수 있었으며,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일본의 군과 관헌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위안소 제도는 명백한 국가 범죄 행위입니다.

# 02

일본군 위안소는 어떤 곳인가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나요?

# 03

피해자 할머니와  
가해자 일본군의  
용기 있는 증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실상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다음 해 8월 14일, "내 나라를 잃어버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가슴이 떨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폭로하셨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용기를 얻은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들의 아픈 과거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신 이옥선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는 꼭 알려져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할머니들에게는 자신들이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생활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순결을 빼앗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

# 04

일본군 위안소는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나요?

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심정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내 원통한 심정을 풀 수 있겠는가. 이젠 더 이상 내 기억을 파헤치고 싶지도 않다.”는 김학순 할머니의 말씀은 다른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있었다면 가해자들도 있었겠지요.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가해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 일본군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쉽게 자신이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런 점에서 일본군'위안부' 가해자들인 일본군 병사들의 증언도 꽤나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본군 병사였던 스즈키 요시오 씨는 “미사오라고 하는 조선인 위안부가 있는 위안소에 매일 밤 담을 넘어 몰래 다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모집이라고 속아서 위안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라며, 당시 조선인 위안부가 감언에 속아서 위안소로 끌려오게 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가네코 야스지 씨는 “나는 함께 데리고 간 3명의 순회 위안부 경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조선 여성으로 경비를 맡게 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좋아서 이런 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

는 말을 했습니다.”라며, 일본군이 위안부의 관리와 감독을 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군들이 점령지역의 여성들에 대하여 집단적인 강간을 하고 살육을 자행한 사실들에 대한 증언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는 분명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사실은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존재와 일본군'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03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나요?

일본군 위안소는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나요?

# 04

정글 숲속에도,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에도,  
일본군이 있는 곳 어디나



22~23쪽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중국 대륙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각지까지 침략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미얀마,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괌과 사이판 같은 태평양의 작은 섬들도 일본의 침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는 여지없이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가해자였던 일본군 병사들의 증언 및 목격자들의 증언, 일본군 관계 자료와 공문서 등을 근거로 만들어진 이 지도를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일입니다. 일본군은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들은 1907년에 맺어진 헤이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에 강간 또는 강제매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여성들에 대한 무자비한 강간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가 일반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아줄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소를

# 05

일본군 '위안부'들은 어떻게 끌려갔나요?

대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의 전쟁지역 확대와 함께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식민지인 조선과 타이완의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점령지역의 여성들도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확인하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정확한 지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짓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지명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들은 한곳에 정착하여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부대에 이끌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 섬으로 끌려다닌 할머니들이 바깥구경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곳의 지명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요.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할머니들은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함께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군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 관리, 감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위안부’들은 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로 중국, 동남아시아의 정글 숲속, 그리고 태평양의 이름 없는 섬으로 끌려다니면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 증언
- 병사 증언
- 공문서, 군 관계 자료
- ▲ 목격 증언, 기타



러시아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미크로네시아 연방

파푸아뉴기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대 협공 라인

인도

마셜제도

안다만제도

니코바르제도

밴다아체 (쿠타라이자)

베난

코타하비루

콜람푸루

조호르바루

부키텔기

수마트라섬

필렐망

자카르타

세이랑

수키부미

민둥

미겔봉

수리바이

자바섬

발리섬

와이카부르크

숨바섬

양곤 (방글)

안공 (방글)

메이묘

라시오

치앙마이

하빈

싼야 (야현)

링수이

하이난섬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치나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장쑤

핑후섬

마오중

가오슝

신주

미얀마

바오산

라오스

하이퉁

하이커우

하이퉁

하노이

광저우

난닝

핑후섬

마오중

# 04

일본군 위안소는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나요?

일본군 '위안부'들은  
어떻게 끌려갔나요?

# 05

유괴와 속임수,  
협박에 의한  
강제 동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ICAL FOUNDATION

# 0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중에서도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다른 나라들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군 '위안부'가 돈을 벌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소를 스스로 찾아갔느냐,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동원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것이 바로 고노담화입니다. 고노담화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 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 반도는 우리 나라의 통치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은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각종 자료는 물론, 유엔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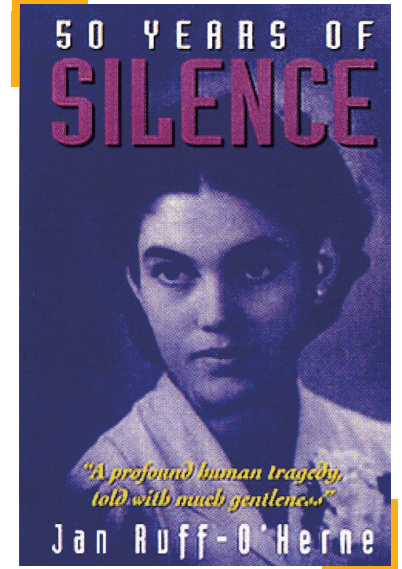
일본군'위안부'였음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는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 군인에게 연행되어 군용트럭에 강제로 태워져서 위안소로 끌려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박영심 할머니는 일본인 순사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난징의 위안소로 끌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두 경우는 일본군'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위안소로 끌려간 경우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 토마스 사리녹 할머니는 “어느 날 밤 두 명의 일본군 병사가 우리집에 들어와 나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저항한 아버지는 일본인 히로오카 대위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일본군 병사가 주둔하고 있는 커다란 집의 2층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인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내가 억류되어 있던 곳에 일본군 장교를 태운 군용차가 와서 17세에서 28세까지의 여성들을 광장에 정렬시키고, '위안부'로 데려갈 여성을 선별했습니다. 나를 포함한 16명이 선별되어 강제로 트럭에 태워진 뒤,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일본군에게 강간당했고 일본군'위안부'가 되었다.



네덜란드인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신문기사 (아사히 신문 1992. 8. 30.)



1992년 자신이 일본군'위안부'였다고 밝힌 오헤른 할머니가 1994년에 펴낸 자서전

고 합니다.

더 이상 강제 동원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 05

일본군'위안부'들은 어떻게 끌려갔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 06

잔혹한 고통과 공포  
그리고 굶주림만이  
있는 생지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IC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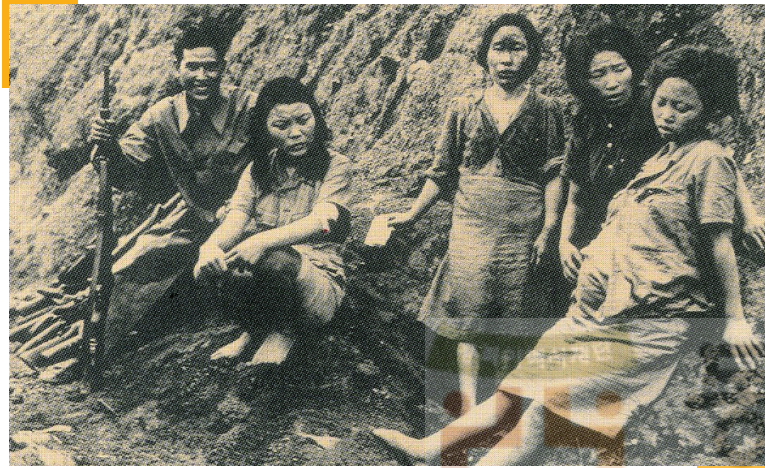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일본군에게 일본군'위안부'는 자신들의 성욕을 채워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여성성에 대한 존중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일본군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허락되지 않은 채,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명이나 되는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일본군'위안부'에게는 가차 없이 일본군의 폭력과 협박이 되돌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일본군'위안부' 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도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여 여성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임신, 유산, 낙태, 사산, 자궁적출, 출산과 격리, 그 어떤 것도 정상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 인권유린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고, 세계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무시당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여성으로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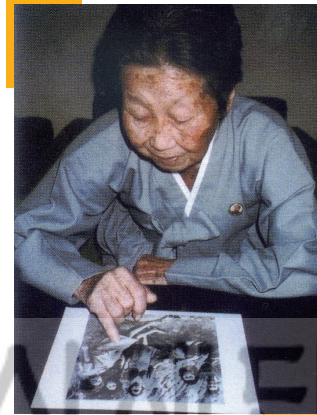
전쟁이 끝난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1944년 미얀마에서 찍은 일본군'위안부' 사진

서 존중받지 못하는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어떻게든 그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탈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군에게 일본군'위안부'는 '군수물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소 주변에는 보초가 항상 '위안부'를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생지옥은 따로 없었을 것



사진에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박영심 할머니

입니다. 그들은 위안소에서 여성성을 모독당하고 폭행당하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쳐 보지만 한계를 절감했을 뿐입니다. 급기야 고통을 잊어보고자 마약에 의지하는 일본군'위안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귀중한 목숨이기에 꼭 살아야 했지만, 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병으로 죽고 아편 중독으로 죽고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혹은 조국을 원망하다가 자살해 죽고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 중 얼마나 많은 일본군'위안부' 여성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 0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전쟁이 끝난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 07

아물지 않는 고통,  
끝나지 않은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신 이옥선 할머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14살 때 일본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일본군'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전쟁에 패한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중국에서 2000년까지 사셨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옥선 할머니처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군'위안부'로 아시아·태평양 각지에 강제 동원된 할머니들은 타지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귀국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이국에 남겨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귀국하거나, 자력으로 귀국하기도 했으나 어쩔 수 없이 현지에 남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목숨을 보전하여 살아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귀국을 했어도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라고 손가락질하는 현실이 겁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 08

일본군'위안부'는 왜 국제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일본군 장병들과 일본군'위안부'로 추정되는 두 여성의 사진

갖지 못했다는 모욕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받아야 할 불이익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패배감, 우울증 및 불면증 등의 심리적 외상 등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활

동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1998년 부산광역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여덟 분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할머니들은 전쟁이 끝난 지 5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70세에서 81세였던 할머니들은 여덟 분 모두 미혼인 상태였습니다. 다섯 분은 동거 가족도 없었고, 두 분은 혼외 자식과, 한 분은 양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건강상태는 관절염, 신경통, 언어장애 등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

으며, 주거형태는 자가 소유자는 한 분도 없고, 2,000만 원 전후의 전세에 살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2년 2월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말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할머니는 총 238명입니다. 이중 생존해 계신 할머니는 55명에 불과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지 않은 할머니들의 숫자는 등록된 할머니들의 숫자보다 수백 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살고 계신 할머니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한에도 적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령도 90세 전후로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신 할머니들에게 이제 전쟁을 끝내드려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쟁의 끝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책임 있는 배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게도 기회는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 07

전쟁이 끝난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본군'위안부'는 왜  
국제법적으로 불법인가요?

# 08

일본의 군과  
관헌이 관여한  
명백한 국가 범죄 행위

# 09

유엔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12월 6일 도쿄지방법원에 '아시아·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과 군인, 군속 등 41명이 일본 정부에 1인당 2,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으로서 우리나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최초의 소송입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 상황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시모노세키 재판으로 알려져 있는 '부산 중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소송'에서는, 1998년 4월 27일 1심 판결에서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 사상의 표현이며 여성 인격의 존엄을 근거에서부터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특별배상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위법하게 게을리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각 3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원고인 할머니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니다. 결과적으로 2심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사법부가 전후 보상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져 아쉬움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이 재판은 세계 곳곳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대부분의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로 전 시하에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사실은 국제법에 근거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와 군이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을까요?

첫째, 인도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한 살해, 절멸,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 지역 국내법 위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범죄의 수행과 관련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 행위입니다.

둘째, 일본 정부도 1932년에 이미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91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학순 할머니

제29호(강제노동규약)의 위반인 성노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로 판단, 1996년부터 일본 정부의 해결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수록하여 왔으나, 일본 정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기준적용위원회의 정식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4년 5월 국제노동기구 103차 총회 강제노동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셋째, 1907년 체결되고 1912년 일본이 비준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부속 규칙에 따라 여성은 전시에 강간 및 강제 매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침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0년 체결되고 1925년 일본이 비준한 부녀매매 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1926년 체결된 노예조약도 위반하고 있는데, 이 조약은 국제관습법으로서 체약국이 아닌 일본도 지켜야 합니다.

유엔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인도에 반한 범죄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2년 2월이 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 하여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를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 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후 유엔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 초의 의미 있는 보고서인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1996년 4월 19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실행해야 할 여섯 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하여 설치된 위안소가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 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하여 원상회복과 배상을 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심사회를 단기간 내에 설치할 것, ③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위안소 관련 모든 문서와 자료를 완전 공개할 것,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된 개개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식사죄할 것, ⑤ 교육과정을 바꿔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일 것, ⑥ 일본군'위안부'의 모집과 수용에 관여했던 범죄자를 특정하여 처벌할 것 등입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유엔에서 채택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이며, 보고서의 내용이 조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8월 21일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맥두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맥두걸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이라는 제목의 부록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권법 및 인도에 관한 법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고, 그 위반은 전체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전쟁 종결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지나서도 이러한 청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생명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과소평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지금 일본 정부는 충분한 구제를 위하여 불가피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또한 맥두걸 보고서는 위안소 제도가 성노예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안소를 강간센터로 규정하여 강제성을 부각한 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면서 생존전범의 색출을 주장하고 있는 점, 일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엔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점, 긴급하고 신속하게 일본 정부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이 강조되는 등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보다 크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엔에서 끊임없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본의 인권상황, 그 중에서도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시 중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일본군이 범한 성노예 또는 그 외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든 의혹은 공정하게 수사하여 가해자를 소추하고 유죄판결이 나면 처벌할 것, 피해자와 그 가족 피해의 사법적 완전회복, 입수가능한 모든 증거의 공개, 교과서의 충분한 기술 및 학생,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 공식적인 사죄를 표명할 것” 등입니다.

또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2014년 8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사법 정의 및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로, 일본 정부에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세계 각국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세기 전례가 없는 최대 인신매매 사례 가운데 하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유엔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인권문제입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성노예의 삶을 강요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격분하면서 일본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이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연방하원의원이었던 레인 에반스는 1999년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미국 의회 의사록에 처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기술되도록 하여 쟁점화시켰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희생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등 미국 정치인 중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인물입니다.

에반스 의원의 뒤를 이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선 사람은 일본계 3세 미국인인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마이크 혼다였습니다. 혼다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2007년 1월 31일 위안부 결의안 제121호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7월 30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날 마이크 혼다 의원은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나의 스승이자 동료 의원이었던 에반스 전 의원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의 통과로 집요하게 이 결의안 통과를 방해했던 일본의 아베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큰 관심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수준에 대하여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넷째,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미국 연방하원이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자, 다른 나라도 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2007년 9월 20일 호주 상원, 11월 8일 네덜란드 하원, 11월 28일 캐나다 하원, 12월 13일 유럽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받은 타이완과 우리나라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2008년 3월 28일에는 효고현 다카라즈카시가 가장 먼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퍼져 나가 2014년 1월 현재, 모두 42개의 지방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혹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의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익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로,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모의재판 결과는 어떠했나요?

'성노예' 전범,  
여성의 힘으로  
응징하다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여성국제법정)'이 열렸습니다. 이 법정에는 한국, 북한, 중국, 필리핀, 타이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8개국 64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하여 일본군'위안부'로서 겪었던 참담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2명의 일본군'위안부' 가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로 연일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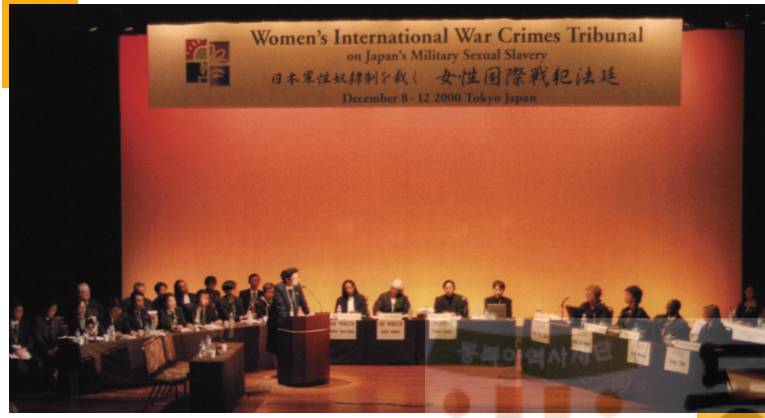
여성국제법정은 일본의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가 아시아여성연대회의에서 개최를 제안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한국의 정대협과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 등 아시아 각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국의 지원단체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주최 측은 법정이 열리게 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임과 동시에, 전시 성폭력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여성의 인권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일

본군 성노예제가 여성에 대한 범죄인 것을 명백히 밝혀 가해자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의 정의와 존엄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전시 성폭력 불처벌에 종지부를 찍고 그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21세기를 향한 과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범죄를 국가가 별주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민사회가 민중의 손으로 벌을 주겠다고 열린 민간법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당시의 처참했던 피해 체험의 증언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소 제도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존엄에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인생을 망치게 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증언 도중 실신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증언대에 설 힘마저 없어 영상 증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12일 일왕 등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일왕 히로히토 및 일본국을 강간 및 성노예 제도에 대해서 인도에 대한 죄로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거로는 "위안소가 조직적으로 설립된 군의 일부이고, 당시 적용 가능한 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도에 대한 죄가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 재판관은 “일본이 당시 비준하고 있던 노예제도, 인신매매, 강제 노동, 강간 등의 인도에 대한 죄에 관련한 각 조약, 관습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최종판결은 1년 후인 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은 인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10명의 피고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필리핀 마을에서 행해진 대량 강간에 대해서는 히로히토 일왕을 상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국제법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에 대하

여 보다 체계적인 국제법적 판단을 시도한 법정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의 마지막 단락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바치는 인류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재판정은 이 판결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제도하에 희생당한 여성들을 기리려고 합니다. 본 재판정은 살아남아 산산이 부서진 삶을 재건하고, 공포와 수치를 이기고 세계를 향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생존자들의 강건함과 위엄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앞으로 나선 많은 여성들은 이름 없는 영웅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것은 고통 받은 여성들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을 기소한 남성이지만, 이 판결문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최소한 4일간은 잘못된 일을 단두대에 올리고 진실을 왕좌에 올린 여성들의 이름을 기립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12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외침

13

서울 종로에 있는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가면 높이 130센티미터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에 손을 움켜쥔 소녀가 의자에 앉아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은 정대협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면서 시작한 수요시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위 1,000회째를 맞이한 2011년 12월 14일에 세워졌습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속죄를 요구하고 고통 받으셨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평화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옆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자에 앉아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유린당한 인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불굴의 정신을 체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외에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림비와 평화비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조형물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이고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에서도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글렌데일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

제일 처음 일본군'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된 곳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파크 공립도서관 옆이었습니다. 그 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조형물이 8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포들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려 한다는 의지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의미 있는 조형물이지만 특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2013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글렌데일 시립공원 공립도서관 앞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은 미국 연방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제121호 채택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또 다른 조형물은 2013년 3월 8일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해켄색 법원 앞의 '메모리얼 아일랜드'에 세워진 기림비입니다. 이 기림비를 만든 주체는 한인사회가 아니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정부입니다. 미국의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최근 2014년 8월 4일 미국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에 세워진 기림비 역시 미국의 지방정부가 나서서 설치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형물을 보면서 과거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왜 따로 논의되지 않았나요?

기억하기 싫은  
아픈 상처로 국가와  
피해자의 침묵 속에  
묻혀버린 진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ICAL FOUNDATION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본국으로 송환된 경우도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 전범재판에서는 35명의 네덜란드 여성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일본군을 단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누구나 기억하기 싫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은 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는 잊혀진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따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일 간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협정발효 후 10년에 걸쳐 한국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장기저리차관)를 제공하는 대신 협정 서명일 당시 한국 및 한국인이 일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재산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맥두걸 보고서도 일본 정부

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맥두걸 보고서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 위안소 설치에 대한 일본군의 직접적 관여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은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조약이지 일본의 인권법 위반 행위를 다루는 조약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일본군'위안부', 강간, 성노예 등 어떤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금액은 단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지, 일본의 잔학행위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 개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일본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라면 당연히 피해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 범죄국가가 되기 때문에 책임회피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공식사죄 및 배상과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정부의 품격은 그나마 지켜질 것입니다.

### 고노담화란 무엇인가요?

일본 정부가 인정한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4일 일본 미야자와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담화입니다. 고노담화는 1991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입니다.

일본 내각관방장관은 우리나라 정부기구로 치자면 정부 대변인의 역할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노 내각관방장관의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생각을 담아낸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노담화의 주요 내용은 위안소는 일본군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민간업자가 주로 담당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더욱이 일본 관헌 등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노담화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일본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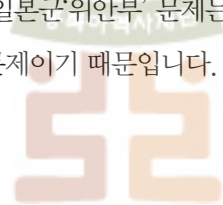
안부'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 관헌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헌이 누구입니까? 일제 강점기의 헌병, 순사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관여한 강제 동원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파 정치인들이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고노담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누우치고 싶어서 발표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것은 1990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제1야당인 사회당의 모토오카 쇼지 의원이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질문했으나, 일본 정부는 군과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이름을 걸고 증언하셨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증언이 있는데 일본 정부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에 나섰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1992년 1월에는 일본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일본군'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하는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한 문서를 발견해 발표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하여 일본군이 일본군'위안부' 문

제에 개입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고노담화는 일본의 양심적인 국회의원과 지식인,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본에서는 고노담화를 근거로 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지고, 이 기금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실시한 이런 행동에는 많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아시아여성기금은 무엇인가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배제한 일본만의 해결책



1993년 고노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일본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등을 구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고노담화의 약속을 구체화시킨 것이 아시아여성기금입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정식명칭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Asian Women's Fund'입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목적은 일본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보상' 사업과 여성의 명예와 존엄 등에 관련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1994년 8월 무라야마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민간기금을 설립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해인 1995년 7월에는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시켰으며, 같은 해 12월에 총리부와 외무성이 공동 관리하는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 해산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하여 보고하거나 관련된 정부의 공문서를 모아 자료집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7년 1월부터 한국과 타이완, 필리핀 등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국민을 대상

으로 모금한 위로금을 총리의 편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주요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으로, 일본 국민의 모금에 의한 위로금 1인당 2백만 엔의 지급과 정부 예산에 의한 의료·복지 지원 사업, 그리고 총리의 사과 편지 전달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여성기금이 문제일까요?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아여성기금은 정부 차원의 배상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따라서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위한 해결책이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일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의 위로금을 수령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위로금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닌 국민들의 모금에 의한 기금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07년 2월 15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청문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가진 네덜란드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안 루프 오헤른은 "아시아여성기금은 개별 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위안부 여성에게 모욕"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엠네스티 한국 지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5년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보고서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1995년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국제적 배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국제적·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엠네스티는 일본 정부 측에 "법적 책임을 지고,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의 진보적인 정권에 의하여 고안된 해결책이었지만, 그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당했던 고통을 충분히 덜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 유일한 해결책은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입니다.

15

아시아여성기금은 무엇인가요?

아베 정부는 왜 고노담화를 부정하려 하나요?

고노담화도  
참을 수 없는  
일본 우익

16

17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54년생이니 만 60세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대입니다. 그의 가계는 유명한 일본의 정치인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외무대신을 역임했고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총리대신을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총리 재임 중,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121호가 채택되기 전에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강제성에 대해서는 종래로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 당초 정의되어진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사죄할 의향은 없다.”, “협박의 강제성과 관련 근거 있는 증언은 없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2007년 4월 미국 방문 도중 “당시 위안부들에게 인간으로서 마음으로부터 동정하며, 일본의 총리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은 “내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본군 위

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고 아베 총리는 또다시 고노담화를 건드렸습니다. 고노담화, 그 자체는 계승하지만 작성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고노담화가 일본 정부의 의지로 발표된 담화가 아니라, 당시 주변국들을 배려하여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베 정부는 고노담화를 검증하여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고노담화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사실 일본이 이른바 문명국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전쟁 범죄이며, 여성에 대한 모독이며, 인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창피한 일이지요. 아베 총리는 이러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노담화를 검증하여 흠집을 내고, 궁극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로서, 담화의 기초가 된 피해자 16명의 생생한

증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아베 정부에서도 고노담화는 계승될 것이라는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주목하며,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안부 문제를 다뤄나갈 것을 독려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고, 중국 정부 또한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 일본의 이른바 고노담화 조사 보고서는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침략 범죄행위를 희석하려고 하는 일본 측의 진짜 의도를 폭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6

아베 정부는 왜 고노담화를 부정하려 하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



18

수요시위는 무엇인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할머니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젊은 나이에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의 삶을 강요당한 할머니들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할머니들은 얼마나 많은 나날을 괴로워하면서 보내셨을까요?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지원이 필요했던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1993년 6월 1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률은 2002년 12월 1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법률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분은 2014년 8월 말 현재 총 238명이며, 이중 55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1993년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생활지원 일시금과 매달 지원금, 영구임대주택 알선, 의료지원을 실시했고, 1998년에는 추가지원으로 1인당 3,150만 원의 일시금과 민간 모금액 6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이 법률에 의해 매월 101만 2,000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연간 1,300만 원의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특별지원금으로는 신규 등록자에게 주거안정지원 일시금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 지원 및 건강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종합건강검진 사업도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생활실태와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금 등에 대한 정책 만족도도 조사하여 할머니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과 같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

류하고 관리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내 외 '위안부' 관련 연구자나 단체 등에 연구자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등에 게재되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용 만화나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는데, 만화가가 그린 만화작품이 2014년 1월 프랑스의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출품·전시되어 세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일본이 집요하게 할머니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당위성이 홍보되는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군'위안부'로 평생의 고통을 겪어지고 살아가고 계신 할머니들이 조금이나마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할머니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수요시위는 무엇인가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흔이 담긴 집회



매주 수요일 정오, 서울 종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2011년 12월 14일에는 1,000번째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동일한 주제로 열리고 있는 최장기간의 시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수요시위를 기획하고 진행한 단체는 정대협입니다.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요시위는 정대협이 주최하고 20개의 정대협 회원단체와 여성단체 및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일반시민들이 주관 및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에 따르면, 수요일 정오에 일본대사관 앞에 나오면 누구나 수요시위의 참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 일반인 등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요시위는 인권과 평화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념일에는 세계연대집회로 진행되어 세계 각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시위에 참가하시는 할머니들, 그리고 함께 시위에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1,000번째 수요시위

동참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가자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요구대상은 일본 정부입니다. 요구사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죄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범죄를 인정할 것, ② 일본군'위안부'의 진상을 즉시 규명할 것, ③ 일본 정부와 국회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 ④ 피해 할머니들에게 정신적 보상과 금전적 배상을 할 것, ⑤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항목을 공식 기재할 것, ⑥ 위령탑 및 사료관을 건립할 것, ⑦ 전범자 및 책임자를 즉시 처벌할 것 등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반응은 사죄도 배상도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인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이후, 수십 년간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서로를 교감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시위에 참가하신 피해 할머니들의 혼이 깃든 공간입니다. 시위에 함께하다 먼저 가신 할머니들의 혼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고통받고 죽임을 당한 피해 할머니들의 영혼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사죄와 배상을 실시한다면 수요시위도 마침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기어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지막 요구를 저버린다면, 설사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세상을 등진다 해도 할머니들을 대신하여 후세들이 계속해서 수요시위를 할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하셨던 김학순 할머니는 이미 고인이 되신 지 오래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던 238명의 할머니 가운데 이제 살아계신 할머니는 55명에 불과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조속한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감언이설에 속고,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서의 삶을 강요당한 할머니들입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계신 할머니들의 평균연령은 88세가 넘습니다. 80세 이하 연령의 할머니는 한 분도 안 계시고 95세 이상인 할머니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아마도 20여 년 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 분도 생존해 계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 그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며, 피해자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할머니들에게 가해자를 직접 용서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전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하면서 일본 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유엔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1세기 전에 못했던 정부의 역할을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게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일본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등한시한 결과,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기구로부터 수많은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과제로, 일본은 한 번도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조용

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신다 하여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할머니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기림비가 있고, 전 세계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이 그리고 일본의 전쟁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를 위해서라도,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인류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길은 무엇인가요?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만이  
해결의 길



동북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웃나라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는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언제까지 서로를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일 양국 간 화해의 길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관계를 고려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분명 있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쫓아가다보면 분명 해결의 실마리는 보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고노담화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했으나 위로금으로 인도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거부당해 실패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노골적으로 과거 정부의 노력마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고노담화가 발표되는 과정에 대하여 검증하여 흡집

을 내려 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제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의 문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인류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 인권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발언권은 커지고 일본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여생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역사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한국과 화해하고자 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일본 정부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참고문헌

-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編著, 『日本軍「慰安婦」問題 すべての疑問に答えます。』, 合同出版, 2013
- 内海愛子,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山川出版社, 2007
- 内海愛子・高橋哲哉, 『戦犯裁判と性暴力』, 緑風出版, 2000
- 高崎宗司, 『検証日韓会談』, 岩波新書, 1996
- 吉見義明, 『従軍慰安婦』, 岩波新書, 1995
- 지명관·이가라시 마사히로·오카다 마사노리·나코 미치다카 편저, 김영필 역,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 영문판 홍보책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 나눔의 집 홈페이지

## 사진출처

- 앞표지 그림\_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 56, 79쪽\_ 연합뉴스
- 8쪽\_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 9쪽\_ 麻生徹男, 『上海より上海へ:兵站病院の産婦人科醫』, 石風社, 1993
- 12쪽\_ 村瀬守保, 『私の従軍中國戦線』, 日本機關紙出版センタ
- 27, 52쪽\_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 30, 34쪽\_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31쪽\_ 西野瑠美子
- 39쪽\_ 勝山泰佑(アジア民衆法廷準備会 編, 『写真圖説日本の侵略』, 大月書店, 1992 수록)